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해외인프라 협력 외교 전개

교통인프라 투자협력 비즈니스 포럼 개최...인프라 분야 고위급 면담 및 협력 활동
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한-인니 정상회담과 국민방문 공식대표단 활동 계기, 아세안 인프라 협력 중점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간 협력강화와 우리기업 시장진출을 위한 인프라 협력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.

- 김현미 장관은 11.8(수)~9(목) 우리 대통령 국민방문 공식대표단 활동을 마치고, 현지 시각 11.10(금) 인도네시아 교통부·공공사업부장관, 경전철(LRT) 발주처인 자카르타 주지사 등과 고위급 협력 활동을 통해 인프라 분야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.

- 인니 공공사업부장관과는 국민방문 계기 광역상수도사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물 관련 사업에 양국간 기술·인적교류 지원과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.

- 자카르타 주지사 면담에서는 자카르타 LRT 협력 MOU를 계기로 한국 컨소시엄이 기 수주한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에 이어 자카르타 경전철 2, 3단계 사업의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및 한국형 운영 관리모델 적용방안을 협의하였다.

- 김현미 장관은 한-인니 교통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로 한국 국토교통부와 인니 교통부가 공동으로 '교통인프라 투자협력 비즈니스 포럼'을 개최하였다.

- 상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, 공공기관, 기업들 간 협력 사업, 금융조달, 기술교류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, 인니 인프라 분야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우리측 관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양측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형태로 진행했다.
- 양국은 교통 MOU 후속조치로 교통인프라 전반에 협력을 위한 인프라 운영위원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, 해외 건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”라며,
 - “전략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17. 11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